

해남, 유기수산물 인증 김 가공시설 확충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식탁김·부각김 생산시설 신설... 하반기 시제품 생산

해남군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식탁김 및 부각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식탁김 생산에 나선다.

해남군은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 471㎡ 규모의 식탁김 및 부각김 생산라인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김 생산시설은 해남군수협 수산식품가공사업단에 10억 4700만원을 지원해 이뤄졌다.

하루 생산 기준 식탁김은 마른김 400속(1만 2000봉), 부각김은 마른김 50속(800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올 하반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최근 마산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서 식탁김 및 부각김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현장점검과 시운



전을 실시했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친환경 유기인증 물김을 활용, 소비자 수요에 맞춘 가공김을 생산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해남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국도비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고품질 김 생산과 김산

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황산면의 지주식 김에 대한 지역 브랜드 및 김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해남김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른김 가공공장 또한 100개소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어민소득 향상과 수산 경쟁력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 유기인증 가공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개선 등 품질향상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시장진출 판로 확보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

청계면 목포대 후문 상권 '시끄러운 동네 프로젝트' 시작

무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상인·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업해 지역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년간 최대 1억 원(국비 50%, 지자체 50%)을 지원받는다.

군은 청계면 목포대 후문을 예비 상권으로 지정하고 '시끄러운 동네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국 유명 독립책방 운영자의 체류를 통한 팝업 책방 운영, 대학교 기숙사·원룸을 활용한 계절형 캠프, 자연자원(승달산, 무안cc) 활용한 골프·등산 등 스포츠 실력 성장 프로그램 등 차별화

된 상권전략을 수립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대 후문 상권은 지난 3월 전라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상권 브랜드화, 골목 축제행사, 디지털 팸플릿·쿠폰북 제작 홍보, 상인역량강화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체계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사업을 통해 대학의 특수성도 살리고 청계면의 고유한 자원들을 활용한 새로운 특화상권 발굴 등 청계면 목대 후문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민 기자

순천시 '순천형 휴(休) 가족캠프' 운영

내달 13일까지 신청순 모집... 1박 2일 간 행복다지기

순천시는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조절 능력 향상과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으로 '2024년 순천형 스마트 휴(休) 가족 캠프'를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간 운영한다.

이번 가족캠프는 미디어 사용이 단절된 환경에서 청소년이 자기 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집단상담, △부모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대안활동(폴라주역자 만들기, 가족 팀워크 UP!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초4~6학년) 및 보호자 15가정(2인

1가정, 3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sc1388dream.or.kr)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활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061-749-4402)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소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염려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미디어 사용 조절에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함평나비대축제, 관광상품

GS홈쇼핑과 연계 판매한다

함평군은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관광상품을 GS홈쇼핑과 연계해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광상품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 전세 열차를 통해 전북 군산역 또는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한 후 전세버스로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 함평나비대축제 관람, 돌머리 해수욕장 및 무지개 다리 산책 등 함평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코스로 구성했다.

판매금액은 8만 9000원이며, 14일 오전 6시 첫방송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GS홈쇼핑에서 판매한다. 생방송 전화주문 또는 GS SHOP 온라인 쇼핑물,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상의 함평군은 "전남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아름다운 나비와 봄꽃이 만들어 내는 절경을 만끽하고 가족 또는 연인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찾아가 떠나는 함평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함평=김홍희 기자

담양,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이전

담양군이 15일부터 공동육아나눔터(신한 꿈도담터 180호점) 및 장난감도서관을 담양군여성회관에서 어울림센터 3층으로 이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는 '신한금융희망재단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

보호자들이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며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영유아 촉감놀이, 초등학생 코딩 수업 등 다양한 상시프로그램과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담양군민은 누구나 무료로 1가정 2점, 최대 2주간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할 수 있으며 재단장을 통해 어린이 놀이공간을 추가 배치, 아이와 부모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영암 대불산단, 에너지 자립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산업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 국비 200억 확보

영암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암군이 2024~2026년 총 332억 원을 투입해 진행할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사업의 하나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은 인프라 구축과 안정화 기

간을 거쳐 대불산단의 기존 에너지 자립률 11.42%를 40.13%까지 끌어 올리고, 탄소 저감과 RE100 인증 지원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불산단 기업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을 지원해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단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조성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 저감 지원 및 에너지 솔루션 제공 등을 추진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대불산단의 에너지 자립, 지역산업의 지속가능발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이어가겠다"면서 "RE100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친환경 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선도적 청정에너지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병영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21억원 확보

대규모 주차장 조성·불금불과 관광 환경 '레벨-업'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병영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투입될 계획이다.

병영시장은 반경 1km 이내 전라병영성, 한골목, 하백기념관 등 풍부한 역사, 자연,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강진의 북서부 지역으로, 2020년부터 병영시장을 중심으로 폐지불고기 특화거리가 조성됐다.

인구수가 1500여 명에 불과한 병영면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141억원을 확보해 이후, 주거 환경정비와 생활 SOC 조성을 통한 문화·돌봄 복지향상 등을 통해

관광객을 비롯한 생활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방 소도시의 기적'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다.

생활인구만 주민등록상 주민 이외에 그 도시를 방문해 지역에 체류하는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진군은 불금불과 첫선을 보인 지난해에만 1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했고, 2억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만큼 올해는 반값 가족 관광의 해의 본격적인 운영에 맞춰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을 다양화시켜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행사의 주 테마인 병영폐지불고기는 물론, 분식과 음식 매대 4개소를 추가해, 새롭게 풍자 바비큐를 통해 분위기를 살리고, 청년 세프존

을 구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세대의 입맛을 저격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병영시장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해, 병영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불금불과 시즌2는 오는 4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7월과 8월 휴시는 제외된다.

강진원 군수는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과 나아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인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금불과 행사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와 관광·반값 가족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광양 감동데이' 시민 소통 재개

마을 우산각 사유지 침범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고충민원 함께 논의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청 시민접견실에서 4월 중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15일 밝혔다.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으며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4팀 7명의 시민이 방문해 ▲대실마을 우산각의 사유지 침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마을안길 사용부지 보상 요구 ▲매화축제 교통통제 및 '차 없는 거리' 재검토요청 ▲진상면지 편찬 예산 지원 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장애인 돌발행동 대비책 마련 및 시내버스 요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 포함 요청 등 총 4건의 건의에 대해 의견을 나



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직선거법」상 2개월간 개최하지 못한 '광양 감동데이' 행사를 선거 직후 곧바로 열어 시민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귀담아 듣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행정의 벽을 낮추고 시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광양 감동데이'를 열어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광양=조순희 기자

곡성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비치

4개 언어 해석... 41종 민원서식·작성요령 수록

곡성군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해석본'을 제작해 민원실 등에 비치했다.

곡성군은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해석된 41종의 민원서식을 군청 민원실과 11개 읍·면사무소에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어로 해석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관련 20종,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11종, (이)혼자등자 관련 5종, 체류지 변경 및 거소이전 관련 5종 등이다.

외국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요령 등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또 온라인으로 민원서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곡성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편의제도에 해석본을 게시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역 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했다"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과 지역 내 외국인들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곡성=홍정백 기자

화순, 중국 남정현과 난화 분야 교류 협약

난화 경쟁력 향상·소득 증대 상호협력

화순군은 지난 12일 중국 복건성 장주시 남정현과 난화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구북규 군수와 군의원 등 관계자 12명은 중국 복건성 남정현을 방문하여 춘란 재배 난실 및 전 시·판매장 등 춘란 산업화 우수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아울러 중국 현지의 춘란 재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춘란 수출 가능성을 검토 중 이다.

이번 협약에서 화순군과 복건성 남정현은 양 기관의 교류 및 난화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난화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화순군 난화 단지 시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난화 상소 홍보 활동 지원 등을 협약하였다.

화순군은 이번 협약뿐 아니라 중국 남양성 등백현, 호북성 수현, 충칭시 가오양와도 난 산업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전국일본춘란연합회 및 화순난 연합회와도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춘란 우량종묘 구입, 춘란 재배 기술 기초교육 추진 등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진행 중이며, 지난 3월에 완공된 화순 춘란 재배 교육장 분양 및 교육, 춘란 우량종묘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북규 군수는 "우리나라 춘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춘란으로 화훼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군의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한 춘란 재배 대중화 및 농가 소득향상(사)전국일본춘란연합회 및 화순난 연합회와도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